

기아·전쟁·질병 지구촌 '화두풀기'

지난해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에서 열린 제3차 세계 종교회의(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에 스님으로서 처음으로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참가한 혜성 스님의 눈을 통해 전쟁·인권·여성·기아 등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는 세계 종교계의 흐름을 가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편집자〉

혜성스님 남아공 '세계종교회의' 참가기

대륙의 자연, 멀게만 느꼈던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한 날은 1999년 9월 13일 이른 아침이었다. 무더웠던 한국의 여름을 뒤로한 채, 한국불교 조계종과 한국종교평화회의의 후원으로 제3차 세계종교회의(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자원봉사자로서 남아프리카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남아프리카. 여러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언어, 유럽 강대국들에 의한 식민지화로 빚어진 인종차별, 성인 10명 당 1명이 AIDS 양성반응을 보이는 곳, 기아, 총기소지, 마약 그리고 심각한 빈부 격차 등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 몸살하고 있는 대륙. 6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끝없이 펼쳐지는 대륙을 가로질러 18시간의 버스 여행을 마치고, 최종 목적지인 케이프 타운(Cape Town)에 도착했다.

1999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케이프 타운에서 열린 제3차 세계종교회의는 종교간의 이해를 통한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라와 나라, 대륙과 대륙의 문화를 상호 이해해, 나만의 세계가 아닌 우리의 세계를 인식하는 자리였다. 개회식에는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넬슨 만델라(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와 부부 주교 등 각국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의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에서 7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는 한국 불교계에서도 종교연합창설선도(이하 URU) 회장인 진철 스님을 비롯해 스님과 교수 5명이 함께했다.

세계종교회의는 1892년 시카고에서 열린 아메리카 박람회에서도 동양과 서양의 정신사적 전통들과 종교 상호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조직되어 이번 회의로 3차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어들의 대륙 아프리카에서 세계종교회의가 열린 것은, 바로 이 대륙에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아·빈곤·여성·폭력·질병 등 모든 위기들이 있고, 이에 맞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가꾸려는 남아공화국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의 위기와 극복의 알레고리는, 지구 전체의 공동체적 번영과 치유에 뜻을 두고 있는 세계종교회의의 이상과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이 회의에서 URU 운동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이 운동은 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범종교합동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97년과 98년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서 URU 현장을 제정하고 또 운동을 전개하는 데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38개국 32종의 종교와 14개 토착종교 등이 참여해, 지구 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 AIDS, 여성, 육아, 건강, 교육, 예술, 인간성 회복, 인종차별, 윤리의식, 종교의 정신적 치유, 종교와 역사형성의 관계, 기아, 미용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 등 700여 개의 주제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의 주술사들이 어떻게 에이즈를 치유할 것인가 하는 주제나,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흥종교들의 활동 등이



◇한국 6대 종교계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들은 9일간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에서 열린 제3차 세계종교회의의 진행을 도우며, 세계 종교계의 관심과 활동을 지켜보았다. 혜성스님은 맨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

달라이 라마·만델라 등 7천여명 참가

인간-자연-종교 조화로운 공존 강조

타종교 축하행사서 참선·염불 소개

특히 눈에 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세계 종교회의에서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함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즉 나와 자연, 나의 종교와 타인의 종교, 정신과 물질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했다.

이 회의의 자원봉사자로 참석한 우리는, 회의의 관련 자료를 수집·분류·정리하는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계 파괴와 자원 고갈을 알리는 환경 보호 캠페인도 전개했다. 이외에도 독일 가톨릭교회의 스테판 신부와 함께 '타종교 축하 행사'(Interfaith celebration)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시인한 '염불'과 '참선'이 계기가 돼 한국불교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자리에 힘입어 회의기간 동안 케이프 타운 소재 가톨릭 성당에서는 현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미사 시간에 염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프리카인들이 염불

을 통해 정신적 평화를 느꼈던 까닭이리라.

남아공화국은 국가(國歌)에 신의 축복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톨릭 국가이다. 국민의 80%가 기독교를 믿고 있으며, 그 외 말레이시아 계통의 사람들과 중동에서 온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이슬람교를, 동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전통종교를 따르고 있다. 불교의 경우 대만 불교계에서 현지인에 대한 포교에 정성을 쏟고 있으며, 동부해안 도시인 '다반'을 중심으로 불교대학들이 건립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계 이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인도불교와 티베트불교 등 동아시아 불교계의 포교가 활발해지고 있다. 또 미국과 영국 등의 불교계에서는 이곳에서 의료·건축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불자들을 수시로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계는 이 암흑의 대륙에 여전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다. 그나마 다

행스러운 것은 승산 스님의 제자인 헤일라(Heila Downey) 법사와 로드니(Rodney Downey) 법사가 이 곳에서 법당을 운영하며,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법사는 케이프 타운 시내 가까이 룬도부시(Rondebosch)라는 곳에 선방을 열어 누구나 참선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12월 8일 행사의 마지막 날, 달라이 라마는 희망 센터(Good hope center)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아프리카인들이 모인 가운데 '종교간의 대화와 문화적 다양성의 조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공유, 책임감'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은 이번 세계종교회의에 참석한 모든 종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남겨주기에 충분했다. 한국불교계의 경우 범종단 차원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대륙별 또는 국가별 전문가를 키워, 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배운다면, 보다 효과적인 불교 포교를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발을 하루 앞둔 날 케이프타운의 신문에 한국 동자승의 친절한 모습이 두 장의 사진으로 크게 소개된 것을 보며,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들이지만 마음만큼 언제나 평화하기를 발원했다. 아프리카가 어느새 이웃으로 내 안에 있던 것이다.

글·혜성스님 (대원사·동국대 불교학과 석사과정)

"삼라만상이 나의 분신 남도 내몸같이 사랑을"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을 밝혀 주신데 큰 뜻이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진리 없는 어두운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진리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누리는 전유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란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으며 우주에 충만하여, 잊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쉽게 찾아 쓰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새 천년 접어들어 처음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18세기까지는 과학이 대두되지 않아 인류는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바른 지혜가 있어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 과학이라는 새로운 화두 속에 인류는 점점 편리해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편리함으로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었으나, 그 부작용으로 엄청난 재앙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편리함이 오히려 인류의 목숨을 옥죄는 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화두는 생명의 존엄까지 위협하는 환경문제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사람들의 여러식은 욕심이 만들어낸 인공의 화살입니다. 환경문제를 환경문제라만 생각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르게 됩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6년 이내 우리 나라는 물이 부족할 나라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누구도 물 부족의 위험함이 얼마나 가까운 사실인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물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과학의 발전속도가 빛의 속도만큼 빠르다고 예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인간의 삶의 형태에 엄청난 질서 파괴를

수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정신 차리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여 디지털 시대가 열린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디지털이란 바로 손가락의 개념입니다. 농경사회는 몸 전체로 부딪치는 시대였고 산업사회는 머리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면 디지털 사회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없는 손가락은 하나의 물체에 준할 뿐입니다. 디지털 시대란 바로 불교의 시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마음 다듬어 제 자리에 받들게 놓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스스로 마음자리를 깨닫고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큰 진리를 설파 하셨습니다. 마음의 눈을 조금이라도 뜨면 삼라만상이 나의 분신 아닌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목숨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생명을 자기 몸같이 아끼고 돌보아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일체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 무한한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즐겁고 쾌활하며 근심없고 평온하며 사슴과 같은 근은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하고 완전한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무명번뇌 걸어내어 무한광명인 불성이 돌아나도록 노력하고,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사회를 이루는데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거룩한 불법이 이 땅에 전해진 것에 감사하고 1600여 년 동안 불법이 전해오도록 노력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마음 밝혀 지혜와 자비의 등불 높이 걸십시오.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법회중계

파계사 법요식

〈2000년 5월 11일〉



성우 스님 (파계사 주지)

21세기 화두 환경문제 욕심이 만들어낸 인과 마음 깨끗이해야 해결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大本(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인)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 집을 다스림)·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둘째 부(富: 부와 귀)·셋째 강녕(康寧: 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 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술소성액(松醪素精液)」·「술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개)와 감시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간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격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 · 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진보의학 보살은 하루에 밤낮으로 증상의 고난을 구해주시는 천수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온갖 죄업이 소멸하는 대비주(大悲呪: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대비심다라니의 준말)를 천번 읽고 무릎이 썩고 고름이 나도 하루 3천배를 하면서 3년간 기도정진 하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어 침과 약초를 받은 후에 인연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도 이들을 치료하니 본인이 알 정도로 진통도 없어지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게 되어 일주일 치료한 후에 완치된 기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무료치료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단, 완치된 분은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시설확장과 대적불사에 거금보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여야 합니다.)

의 료 인 효성양방 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불로화정본포